

복지  
영성  
낙수

# 복지영성

성경으로 사회사업을 배우고 성찰하며 영성을 다듬어 갑니다.

2021년 9월 25일

servant@welfare.or.kr 02-822-2643, 010-3080-8197

원고를 홈페이지(welfare.or.kr)에 한글과 PDF 파일로 공유합니다.

1. 선행과 구원 .....	3	11. 어른을 책망할 때 .....	36
2. 교회 사회사업 .....	9	12. 아이를 책망할 때 .....	39
3. 강점 .....	11	13. 남이 욕할 때 .....	40
4. 위험한 수단 .....	16	소원 .....	43
5. 사회사업 공부 .....	19	유언 .....	43
6. 인문학 .....	20		
7. 역설 .....	22		
8. 안식일 .....	23		
9. 동역 .....	26		
10. 동료 .....	32		

## 1. 선행과 구원

### 1) 선행 대상자의 구원

영혼 구원에 쓰이지 않는 선행은 가치가 없을까요? 영혼 구원을 위해 선행을 수단화해도 될까요?

선행 대상자의 영혼 구원, 간절히 원하는 바입니다.

선행이 영혼 구원에 도움이 되기도 합니다.

그러나 선행과 영혼 구원은 별개입니다. 선행한다고 예수 믿게 되는 건 아닙니다. 선행이 구원에 이르게 하는 건 아닙니다.

포교 수단으로 하는 선행은 오히려 역효과를 낼 수 있습니다. 교적 등록이나 미사 참석을 조건으로 하는 선행은 더욱 그렇습니다.

사회사업은 하느님의 특별한 관심사에 동역하며 하느님의 정의를 이루는 일입니다. 그 자체로 귀하고 복된 일입니다. 약자에 대한 하느님의 배려, 예수님께서 행하신 일, 사도들의 행적, 어느 모로 보나 선행은 그 자체로 가치 있는 일인 것 같습니다.<sup>1)</sup>

---

1) 예수님께서 가난한 사람과 병든 사람과 귀신 들린 사람과 장애인을 도우심도 대개는 그저 가엾은 마음이 드셨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마태 14,14 예수님께서서는 배에서 내리시어 많은 군중을 보시고 가엾은 마음이 드시어, 그들 가운데에 있는 병자들을 고쳐 주셨다.

눈먼 사람을 보게 하실 때에도(마태 20,31-34), 나병 환자를 깨끗하게 하실 때에도(마르 1,40-43), 라자로를 살리실 때에도(요한 11,33-35) 나인 고을 과부의 아들을 살리실 때에도(루카 7,11-17) ‘가엾은 마음이 드시어’ 그리하셨다고 쓰여 있습니다.

## 선행과 전도

사도 9,36-42 야포에 타비타라는 여제자가 있었다. 이 이름은 그리스 말로 번역하면 도르카스라고 한다. 그는 선행과 자선을 많이 한 사람이었는데, 그 무렵에<sup>1)</sup> 병이 들어 죽었다. 그래서 사람들이 그의 시신을 씻어 옥상 방에 눕혀 놓았다. 리따는 야포에서 가까운 곳이므로, 제자들은 베드로가 리따에 있다는 말을 듣고 그에게 사람 둘을 보내어, “지체하지 말고 저희에게 건너와 주십시오.” 하고 청하였다. 그래서 베드로가 일어나 그들과 함께 갔다. 베드로가 도착하자 사람들이 그를 옥상 방으로 데리고 올라갔다. 그러자 과부들이 모두 베드로에게 다가가 올면서, 도르카스가 자기들과 함께 있을 때에 지어 준 속옷과 겹옷을 보여 주었다. 베드로는 그들을 모두 밖으로 내보내고 나서 무릎을 꿇고 기도를 드린 다음 시신 쪽으로 돌아서서, “타비타, 일어나시오.” 하고 말하였다. 그러자 그 여자가 눈을 떴다. 그리고 베드로를 보고 일어나 앉았다. 베드로는 손을 내밀어 그를 일으켜 세운 다음, 성도들과 과부들을 불러 다시 살아난 도르카스를 보여 주었다. 이 일이 온 야포에 알려지자 많은 사람이 주님을 믿게 되었다.

---

1) 사도 9,32-35 베드로는 모든 지방을 두루 다니다가 리따에 사는 성도들에게도 내려가게 되었다. 거기에서 베드로는 애네아스라는 사람을 보았는데, 그는 중풍에 걸려 팔 년 전부터 침상에 누워 있었다. 베드로가 그에게 말하였다. “애네아스, 예수 그리스도께서 당신을 고쳐 주십니다. 일어나 침상을 정돈하십시오.” 그러자 곧 애네아스가 일어났다. 리따와 사론의 모든 주민이 그를 보고 주님께 돌아섰다.

## 2) 선행하는 사람의 구원

에페 2,8-9 여러분은 믿음을 통하여 은총으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이는 여러분에게서 나온 것이 아니라 하느님의 선물입니다. 인간의 행위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니 아무도 자기 자량을 할 수 없습니다.

갈라 2,16 그러나 사람은 율법에 따른 행위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율법에 따른 행위가 아니라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으로 의롭게 되려고 그리스도 예수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어떠한 인간도 율법에 따른 행위로 의롭게 되지 않기 때문입니다.<sup>1)</sup>

갈라 2,21 나는 하느님의 은총을 헛되게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율법을 통하여 의로움이 온다면 그리스도께서 헛되이 돌아가신 것입니다.

로마 4,4-5 일을 하는 사람에게는 품삯이 선물이 아니라 당연한 보수로 여겨집니다. 그러나 일을 하지 않더라도 불경한 자를 의롭게 하시는 분을 믿는 사람은, 그 믿음을 의로움으로 인정받습니다.

로마 11,6 이렇게 은총으로 되는 것이라면 더 이상 사람의 행위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지 않으면 은총이 더 이상 은총일 수가 없습니다.

---

### 1) 평화의 기도

“주님 저를 당신의 도구로 써 주소서.

미움이 있는 곳에 사랑을, 다툼이 있는 곳에 용서를, 분열이 있는 곳에 일치를, 의혹이 있는 곳에 신앙을, 그릇됨이 있는 곳에 진리를, 절망이 있는 곳에 희망을, 어둠에 빛을, 슬픔이 있는 곳에 기쁨을 가져오는 자 되게 하소서.

위로받기보다는 위로하고 이해받기보다는 이해하며 사랑받기보다는 사랑하게 하여 주소서. 우리는 줌으로써 받고 용서함으로써 용서받으며 자기를 버리고 죽음으로써 영생을 얻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해야 영생을 얻기 때문에? 이렇게 하면 영생을 얻을 수 있을까요?

## 믿음과 실천

야고 2,14-26 나의 형제 여러분, 누가 믿음이 있다고 말하면서 실천이 없으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그러한 믿음이 그 사람을 구원할 수 있겠습니까? 어떤 형제나 자매가 혈벗고 그날 먹을 양식조차 없는데, 여러분 가운데 누가 그들의 몸에 필요한 것은 주지 않으면서, “평안히 가서 몸을 따뜻이 녹이고 배불리 먹으시오.” 하고 말한다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이와 마찬가지로 믿음에 실천이 없으면 그러한 믿음은 죽은 것입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은 이렇게 말할 것입니다. “그대에게는 믿음이 있고 나에게서는 실천이 있소.” 나에게 실천 없는 그대의 믿음을 보여 주십시오. 나는 실천으로 나의 믿음을 보여 주겠습니다. 그대는 하나님께서 한 분이심을 믿습니까? 그것은 잘하는 일입니다. 마귀들도 그렇게 믿고 무서워 떨니다. 아, 어리석은 사람이여! 실천 없는 믿음은 쓸모가 없다는 사실을 알고 싶습니까?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자기 아들 이사악을 제단에 바칠 때에 실천으로 의롭게 된 것이 아닙니까? 그대도 보다시피, 믿음이 그의 실천과 함께 작용하였고, 실천으로 그의 믿음이 완전하게 된 것입니다. 그렇게 하여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하나님께서 그것을 의로움으로 인정해 주셨다.”는 성경 말씀이 이루어졌고, 그는 하나님의 벗이라고 불리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도 보다시피, 사람은 믿음만으로 의롭게 되는 것이 아니라 실천으로 의롭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창녀 라합도 심부름꾼들을 맞아들이고 또 그들을 다른 길로 내보냈을 때에 실천으로 의롭게 된 것이 아닙니까? 영이 없는 몸이 죽은 것이듯 실천이 없는 믿음도 죽은 것입니다.

여기 ‘실천’이 선행이나 윤리적 행위를 가리키는 말일까요?

아브라함과 라합이 의롭게 된 것은 어려운 사람에게 쓸 것을 주어 평안하게 따뜻하게 배부르게 한 ‘선행’ 때문일까요? 정직하거나 깨끗한 ‘윤리적 행위’ 때문일까요?

## 강도 만난 사람과 이웃, 영생과 자비

루카 10,25-37 어떤 율법 교사가 일어서서 예수님을 시험하려고 말하였다. “스승님, 제가 무엇을 해야 영원한 생명을 받을 수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율법에 무엇이라고 쓰여 있느냐? 너는 어떻게 읽었느냐?” 그가 “네 마음을 다하고 네 목숨을 다하고 네 힘을 다하고 네 정신을 다하여 주 너의 하느님을 사랑하고 ‘네 이웃을 너 자신처럼 사랑해야 한다.’ 하였습니다.” 하고 대답하자, 예수님께서 그에게 이르셨다. “옳게 대답하였다. 그렇게 하여라. 그러면 네가 살 것이다.” 그 율법 교사는 자기가 정당함을 드러내고 싶어서 예수님께, “그러면 누가 저의 이웃입니까?” 하고 물었다. 예수님께서 응답하셨다.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예리코로 내려가다가 강도들을 만났다. 강도들은 그의 옷을 벗기고 그를 때려 초추검으로 만들어 놓고 가 버렸다. 마침 어떤 사제가 그 길로 내려가다가 그를 보고서는, 길 반대쪽으로 지나가 버렸다. 레위인도 마찬가지로 그곳에 이르러 그를 보고서는, 길 반대쪽으로 지나가 버렸다. 그런데 여행을 하던 어떤 사마리아인은 그가 있는 곳에 이르러 그를 보고서는, 가엾은 마음이 들었다. 그래서 그에게 다가가 상처에 기름과 포도주를 붓고 짜맨 다음, 자기 노새에 태워 여관으로 데리고 가서 돌보아 주었다. 이튿날 그는 두 테나리온을 꺼내 여관 주인에게 주면서, ‘저 사람을 돌보아 주십시오. 비용이 더 들면 제가 돌아올 때에 갚아 드리겠습니다.’ 하고 말하였다. 너는 이제 사람 가운데에서 누가 강도를 만난 사람에게 이웃이 되어 주었다고 생각하느냐?” 율법 교사가 “그에게 자비를 베푼 사람입니다.”<sup>1)</sup> 하고 대답하자, 예수님께서 그에게 이르셨다. “가서 너도 그렇게 하여라.”<sup>2)</sup>

---

1) 강도 만난 사람이 내 이웃이고 그러므로 영생을 얻으려면 강도 만난 사람 같은 이웃을 사랑해야 한다는 말씀일까요? 강도 만난 사람 같은 내게 자비를 베풀어 살리신 예수님이 내 이웃이고 그러므로 영생을 얻으려면 예수님을 사랑해야 한다는 말씀일까요?

2) 영생을 ‘얻으려면’ 이와 같이 하라는 말씀일까요? 예수님의 자비로 영생을 ‘얻었으니’ 예수님처럼 자비를 베풀라는 말씀일까요?

아래 말씀도 마음에 담아 둡니다.

마태 25,31-40 사람의 아들이 영광에 싸여 모든 천사와 함께 오면, 자기의 영광스러운 옥좌에 앉을 것이다. 그리고 모든 민족들이 사람의 아들 앞으로 모일 터인데, 그는 목자가 양과 염소를 가르듯이 그들을 가릴 것이다. 그렇게 하여 양들은 자기 오른쪽에, 염소들은 왼쪽에 세울 것이다. 그때에 임금이 자기 오른쪽에 있는 이들에게 이렇게 말할 것이다. ‘내 아버지께 복을 받은 이들아, 와서, 세상 창조 때부터 너희를 위하여 준비된 나라를 차지하여라. 너희는 내가 굶주렸을 때에 먹을 것을 주었고, 내가 목말랐을 때에 마실 것을 주었으며, 내가 나그네였을 때에 따뜻이 맞아들였다. 또 내가 헐벗었을 때에 입을 것을 주었고, 내가 병들었을 때에 돌보아 주었으며, 내가 감옥에 있을 때에 찾아 주었다.’ 그러면 그 의인들이 이렇게 말할 것이다. ‘주님, 저희가 언제 주님께서 굶주리신 것을 보고 먹을 것을 드렸고, 목마르신 것을 보고 마실 것을 드렸습니까? 언제 주님께서 나그네 되신 것을 보고 따뜻이 맞아들였고, 헐벗으신 것을 보고 입을 것을 드렸습니까? 언제 주님께서 병드시거나 감옥에 계신 것을 보고 찾아가 뵈었습니까?’ 그러면 임금이 대답할 것이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한다. 너희가 내 형제들인 이 가장 작은 이들 가운데 한 사람에게 해 준 것이 바로 나에게 해 준 것이다.’ 그때에 임금은 왼쪽에 있는 자들에게도 이렇게 말할 것이다. ‘저주받은 자들아, 나에게서 떠나 악마와 그 부하들을 위하여 준비된 영원한 불 속으로 들어가라. 너희는 내가 굶주렸을 때에 먹을 것을 주지 않았고, 내가 목말랐을 때에 마실 것을 주지 않았으며, 내가 나그네였을 때에 따뜻이 맞아들이지 않았다. 또 내가 헐벗었을 때에 입을 것을 주지 않았고, 내가 병들었을 때와 감옥에 있을 때에 돌보아 주지 않았다.’ 그러면 그들도 이렇게 말할 것이다. ‘주님, 저희가 언제 주님께서 굶주리시거나 목마르신거나 나그네 되신 것을 보고, 또 헐벗으시거나 병드시거나 감옥에 계신 것을 보고 시중들지 않았다는 말씀입니까?’ 그때에 임금이 대답할 것이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한다. 너희가 이 가장 작은 이들 가운데 한 사람에게 해 주지 않은 것이 바로 나에게 해 주지 않은 것이다.’ 참조 : ?쪽 ‘이해하기 어려운 이야기’



## 2. 교회 사회사업

마르 7,9-13 “너희는 너희의 전통을 고수하려고 하느님의 계명을 잘도 저버린다. 모세는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여라.’ 그리고 ‘아버지나 어머니를 욕하는 자는 사형을 받아야 한다.’고 말하였다. 그런데 너희는 누가 아버지나 어머니에게 ‘제가 드릴 공양은 코르반, 곧 하느님께 바치는 예물입니다.’ 하고 말하면 된다고 한다. 그러면서 아버지나 어머니에게 더 이상 아무것도 해 드리지 못하게 한다. 너희는 이렇게 너희가 전하는 전통으로 하느님의 말씀을 폐기하는 것이다. 너희는 이런 것들을 많이 한다.”

이와 같이 이웃에게 나누어야 할 것을 교회에 바치게 함으로써, 교회 일을 위해 이웃 사랑을 저버리게 하는 부작용을 낳을 수 있습니다.

세상의 빛이요 소금이라 하셨는데(마태 5,13-14) 그 빛을 교회라는 함지 속에 두고 그 소금을 교회라는 항아리 속에 두니 세상은 어두워지고 맛을 잃어 갑니다. 교회에서만 빛과 소금입니다. 교회만 빛나고 맛납니다. 교회는 좋은 일 많이 한다는데 교인들은 선한 행실을 잃어 갑니다.

신자를 동원하여 교회의 ‘복지사업’을 이루기보다 저마다 제 마당 제 삶터 자기 인간관계와 일상생활에서 선행하는 ‘신자의 삶’을 세우면 좋겠습니다.<sup>1)</sup>

---

1) 대조 : 사도 2,44-45 신자들은 모두 함께 지내며 모든 것을 공동으로 소유하였다. 그리고 재산과 재물을 팔아 모든 사람에게 저마다 필요한 대로 나누어 주곤 하였다.

로마 15,25-26 예루살렘으로 성도들에게 봉사하러 떠납니다. 마케도니아와 아카디아 신자들이 예루살렘에 있는 성도들 가운데 가난한 이들에게 자기들의 것을 나누어 주기로 결정하였기 때문입니다. (2코린 8~9장)

주의! 사도 5,1-11 하나니아스와 사피라의 시험 / 사도 6,1 배급과 불평 / 2코린 8,20-21 구제 헌금에 대한 비방 우려, 선한 일도 조심!

※ 교회의 사랑 구제 후원 봉사

흔히 교회나 기독교인의 도움은 말씀에 대한 순종, 믿는 사람의 도리, 이웃 사랑, 구제, 봉사, 선행, 목회, 선교, 교회 성장 같은 ‘돕는 쪽의 필요’에서 비롯하거나 중심도 여기에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인지 교회나 기독교인에게 돕는 행위는 곧 의무가 되고 형식이 되고 사역이 되어 버리곤 합니다.

당사자 속에 있는 하느님의 형상이나 당사자의 인격 자존심 체면 따위는 중요하게 다루지 않는 것 같습니다. 참조 : 복지영성 ‘존중’

당사자를 생각하는 마음보다 자기 믿음, 자기 의를 생각하는 마음이 더 크게 작용하는 것 같습니다.<sup>1)</sup>

이런 까닭에서인지 교회의 구제 사역이나 기독교인의 봉사 행위가 ‘자기 의’는 세우는데 당사자의 인격은 오히려 해치는 일이 많습니다. 흔히 자기는 존귀하고 당사자는 비천합니다. 자기는 강하고 당사자는 약합니다. 이웃 사랑 설교에도 그 이웃을 밑으로 보는 듯한 표현, 불쌍한 사람 따위로 구차하게 대상화하는 표현이 종종 있습니다.

---

1) 이웃을 위해 구제 봉사 선행 따위의 이웃 사랑이 필요하지만 교회나 기독교인의 이웃 사랑을 위해 이웃이 필요(?)한 것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참조 : 복지야성 복지기계 편 ‘존재 모순’

### 3. 강점

#### 1) 문제 비우기

욕의 욕망은 지우려 할수록 더 생각나고 없애려 할수록 더 살아나곤 합니다. 욕의 욕망을 없애려고 싸우기보다 그저 성령의 인도에 따라 행하는 편이 낫습니다.

갈라 5,16 성령의 인도에 따라 살아가십시오. 그러면 욕의 욕망을 채우지 않게 될 것입니다.

문제를 비우면 다른 문제가 들어옵니다. 옛 문제가 다시 오기도 합니다. 문제가 더 나빠지거나 많아지기도 합니다.

마태 12,43-45 “더러운 영이 사람에게서 나가면, 쉴 데를 찾아 물 없는 곳을 돌아다니지만 찾지 못한다. 그때에 그는 ‘내가 나온 집으로 돌아가야지.’ 하고 말한다. 그리고는 가서 그 집이 비어 있을 뿐만 아니라 말끔히 치워지고 정돈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된다. 그러면 다시 나와, 자기보다 더 악한 영 일곱을 데리고 그 집에 들어가 자리를 잡는다. 그리하여 그 사람의 끝이 처음보다 더 나빠진다. 이 악한 세대도 그렇게 될 것이다.”

자꾸만 문제를 보고 문제를 건드리고 문제와 싸우려 드는 사람에게는 이 문제 저 문제 온갖 문제 이어 들어 편안한 날이 없습니다.

문제 비우기는 ‘모래 웅덩이에서 물 퍼내기’와 같습니다.

## 2) 강점 채우기

2코린 12,7-10 하느님께서 내 몸에 가시를 주셨습니다. 그것은 사탄의 하수인으로, 나를 줄곧 찢러 대 내가 자만하지 못하게 하시려는 것이었습니다. 이 일과 관련하여, 나는 그것이 나에게서 떠나게 해 주십시오 하고 주님께 세 번이나 청하였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너는 내 은총을 넉넉히 받았다. 나의 힘은 약한 데에서 완전히 드러난다.”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그리스도의 힘이 나에게 머무를 수 있도록 더없이 기쁘게 나의 약점을 자랑하렵니다. 나는 그리스도를 위해서라면 약함도 모욕도 재난도 박해도 역경도 달갑게 여깁니다. 내가 약할 때에 오히려 강하기 때문입니다.

약점을 없애려 애쓰기보다 그리스도의 힘이 내게 머무를 수 있게 함이 좋습니다. 내 힘이 약한 데서 주님의 힘이 완전히 드러나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를 위함’이라는 삶의 목적, 이 강점을 살리면 약점도 달갑게 여길 수 있으니 내가 약할 때에 오히려 강하기 때문입니다.

문제 나름이겠지만, 문제가 없어지면, 좋을까요? 문제를 없애는 일이 꼭 좋은 일이라는 확신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문제를 없애려 하기보다 문제가 있음에도 살아갈 만한 강점을 찾으려 합니다. 문제를 감당 극복 초월할 수 있을 만한 강점을 살리려 합니다.

문제를 꼭 없애야 하는 건 아닙니다.

문제가 있어도 살아갈 수 있다면, 문제를 감당 극복 초월할 수 있다면, 문제까지 합하여 선이 되게 할 수 있다면, 문제에 잘 대응한다 할 수 있습니다.

### 3) 하느님 강점

신명 20,1-4 너희가 적과 싸우러 나가서, 기마와 병거와 너희보다 수가 더 많은 군대를 보더라도, 그들을 두려워해서는 안 된다. 너희를 이집트 땅에서 데리고 올라오신 주 너희 하느님께서 너희와 함께 계시다. 싸울 때가 다가오면 사제가 앞에 나서서 백성에게 말해야 한다. 그는 백성에게 이렇게 말해야 한다. ‘이스라엘아, 들어라. 너희가 오늘 적과 싸울 때가 다가왔다. 너희 마음을 약하게 가지지 말고 두려워하지 마라. 당황하지도 말고 그들 앞에서 떨지도 마라. 주 너희 하느님은 너희를 위하여 적들과 싸우시러 너희와 함께 나아가셔서, 너희를 구원해 주시는 분이시다.’

2열왕 6,15-17 (아람 임금인 엘리사를 잡으려고 군마와 병거와 큰 부대를 보내어 포위했더니) 하느님의 사람의 시종이 아침 일찍 일어나서 밖에 나갔다가, 군마와 병거를 거느린 부대가 성읍을 둘러싸고 있는 것을 보았다. 그 종이 엘리사에게 “아이고, 주인님! 이걸 어찌하면 좋습니까?” 하고 물었다. 엘리사는 “두려워하지 마라. 우리 편이 그들 편보다 많다.” 하고서는, 이렇게 기도하였다. “주님, 저 아이의 눈을 여시어 보게 해 주십시오.” 그러자 주님께서 그 종의 눈을 열어 주셨다. 그가 보니 군마와 불 병거가 엘리사를 둘러싸고 온 산에 가득하였다.

2역대 32,6-8 (아시리아 임금 산헤립이 쳐들어온 것을 보고 히즈키아가) 군대를 통솔할 전투 지휘관들을 임명한 다음, 그들을 성문 광장에 모아 놓고 격려하며 말하였다. “힘과 용기를 내어라. 아시리아 임금과 그가 거느린 모든 무리 앞에서 두려워하지도 당황하지도 마라. 그보다 더 크신 분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그에게는 살로 된 팔밖에 없지만, 우리에게는 주 우리 하느님께서 계시어 우리를 도와주시고 우리 대신 싸워 주신다.” 백성은 유다 임금 히즈키아의 말을 듣고 안심하였다.

열두 사람이 가나안 땅을 정찰했는데 열 명은 문제를 보았고 문제 중심으로 보고했습니다.

민수 13,32-33 “우리가 가로지르며 정찰한 그 땅은 주민들을 삼켜 버리는 땅이다. 그리고 우리가 그 땅에서 본 백성은 모두 키 큰 사람뿐이다. 우리는 또 그곳에서 나팔족을 보았다. 아나키의 자손들은 바로 이 나팔족에서 나온 것이다. 우리 눈에도 우리 자신이 메뚜기 같았지만, 그들의 눈에도 그랬을 것이다.”

다른 두 명은 강점을 보았고 강점 중심으로 보고했습니다.

민수 14,7-9 “우리가 가로지르며 정찰한 저 땅은 정말 무척이나 좋은 땅입니다. 우리가 주님 마음에 들기만 하면, 그분께서는 우리를 저 땅으로 데려가셔서 그곳을 우리에게 주실 것입니다. 그곳은 젓과 꿀이 흐르는 땅입니다. 다만 여러분은 주님을 거역하지만 마십시오. 그리고 저 땅의 백성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그들은 이제 우리의 밥입니다. 그들을 덮어 주던 그들은 이미 견혀 버렸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그들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예리코 성을 만났을 때 크고 견고한 성이라는 문제를 바라보며 고민하지 않았습다. 하느님을 바라보았습니다. 어떠한 요새라도 무너뜨릴 수 있는 하느님을 의지한 겁니다. 여호수아기 제6장; 2코린 10,4

사울과 온 이스라엘군은 필리스티아인 투사 골리앗을 보고 무서워서 어쩔 줄 몰랐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하느님을 바라보았기에 골리앗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다. 무시했습니다. 사무엘기 상권 제17장

강점을 보니 문제는 별것 아니었습니다.

저쪽에 나팔족과 예리코 성과 골리앗이 있을지라도, 이쪽에 하느님이 계시니 문제없다는 말입니다. ‘제가 비록 어둠의 골짜기를 간다 하여도 재앙을 두려워하지 않으리니 당신께서 저와 함께 계시기 때문입니다. 시편 23,4’ 함과 같습니다.

#### 4) 당사자와 지역사회의 강점

2열왕 4,1-7 (여자의 기름과 두 아들, 이웃의 그릇) 예언자 무리의 아내들 가운데 하나가 엘리사에게 호소하였다. “어르신의 종인 제 남편이 죽었습니다. 어르신께서도 아시다시피 어르신의 종은 주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빛을 준 사람이 와서 제 두 아들을 종으로 데려가겠다고 합니다.” 엘리사가 그 여자에게 말하였다. “내가 어떻게 하면 좋겠소? 집에 무엇이 남아 있는지 알려 주시오.” 여자가 대답하였다. “이 여종의 집에 남아 있는 것이라고는 기름 한 병밖에 없습니다.” 그러자 엘리사가 말하였다. “밖으로 나가 모든 이웃 사람에게서 그릇을 빌려 오시오. 빈 그릇을 되도록 많이 빌려다가, 두 아들을 데리고 안으로 들어가 문을 잠그고서, 그릇마다 기름을 붓고 그릇이 가득 차면 옆에 옮겨 놓으시오.” 여자는 엘리사에게서 물리나, 두 아들을 데리고 안으로 들어가서 문을 잠갔다. 그러고는 두 아들이 그릇을 건네주는 대로 계속 기름을 부었다. 그릇마다 기름이 가득 차자 여자가 아들에게 일었다. “그릇을 더 가져오너라.” 아들이 여자에게 “그릇이 더 없습니다.” 하고 대답하니, 기름이 더 이상 나오지 않았다. 여자가 하느님의 사람에게 가서 이 일을 알리자, 그는 “가서 기름을 팔아 빛을 사고, 남은 것으로는 당신과 당신 아들이 살아가시오.” 하고 말하였다.

#### 5) 파멸 요인과 용서 요인

창세 18,26 “소돔 성읍 안에서 내가 의인 쉰 명을 찾을 수만 있다면, 그들을 보아서 그곳 전체를 용서해 주겠다.” 32 “혹시 그곳에서 열 명을 찾을 수 있다면?” “그 열 명을 보아서라도 내가 파멸시키지 않겠다.”

예레 5,1 예루살렘 거리마다 쏘다니며 살펴보고 알아보아라. 한 사람이라도 만날 수 있는지 광장마다 찾아보아라. 올바르게 행동하고 진실을 찾는 이가 있어 내가 그곳을 용서할 수 있는지 알아보아라.

잠언 15,24 사려 깊은 이는 위로 난 생명의 길을 걸어 아래에 있는 저승을 벗어난다.

#### 4. 위험한 수단

이사 30,1-3 불행하여라, 반항하는 자식들! 주님의 말씀이다. 그들은 계획을 실행하지만 그것은 나에게서 나온 것이 아니며 동맹을 맺지만 내 뜻에 따라 한 것이 아니다. 그들은 죄악에 죄악을 더할 뿐이다. 그들은 내 뜻을 물어보지도 않고 이집트로 내려가서 파라오의 보호 속에 안전을 찾고 이집트의 그늘 속에 피신하려 한다. 그러나 파라오의 보호는 너희에게 수치가 되고 이집트의 그늘로 피신함은 치욕이 되리라.

이사 31,1-3 불행하여라, 도움을 청하러 이집트로 내려가는 자들! 군마에 의지하는 자들! 그들은 병거의 수가 많다고 그것을 믿고 기병대가 막강하다고 그것을 믿으면서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분을 바라보지도 않고 주님을 찾지도 않는다. 그러나 그분 역시 지혜로우시기에 재앙을 내리시고 당신의 말씀을 거두지 않으신다. 악을 저지르는 자들의 집안에 맞서, 나쁜 짓 하는 자들을 돕는 자들에게 맞서 일어서시리라. 이집트인들은 인간일 뿐 하느님이 아니다. 그들의 군마는 고깃덩어리일 뿐 영이 아니다. 주님께서 손을 뻗치시면 돕는 자는 비틀거리고 도움을 받는 자는 쓰러져 모두 함께 망하리라.<sup>1)</sup>

---

1) 불행하여라, 외부 자원 찾아 해매는 자들! 공모 사업에 의지하는 자들! 그들은 자원이 많다고 그것을 믿고 서류 잘 꾸민다고 그것을 믿으면서 당사자의 삶과 지역사회 사람살이를 바라보지도 않고 당사자와 지역사회를 주체로 세우지도 않는다. 그러나 당사자와 지역사회도 지혜롭기에 더러는 더욱 의존하려 들고 더욱 떠맡기려 들고 더욱 요구하려 든다. 더러는 자주성과 공생성을 해치는 자들의 집단과 그 자금을 대 주는 물주들에 맞서 일어서리라. 외부 자원은 한 바가지 물일 뿐 물의 원천이 아니다. 그 자원은 한순간의 빵조각일 뿐 항구한 자산이 아니다. 평지풍파 일어나 돕는 자도 비틀거리고 도움을 받는 자도 쓰러져 모두 함께 구차해지리라.



잠언 25,19 환난을 당할 때에 배신자를 믿는 것은 부서지는 이요 비틀 거리는 밭과 같다.

예레 29,6-7 (이집트) 너는 이스라엘 집안에게 갈대 지팡이밖에 되지 못하였다. 그들이 손으로 너를 붙잡으면 너는 부러지면서 그들의 어깨를 찢고 그들이 너를 의지하면 너는 꺾어지면서 그들의 허리를 온통 휘청거리게 하였다.

하느님과 상관없이 베푼 계약은 그 실상이나 결국이 이리합니다. 흑 눈 앞의 곤경은 벗어날지라도 항구한 자산이 되지 못하고 더 큰 문제를 일으킬 겁니다.

생수의 원천인 하느님을 저버리고 제 힘으로 파는 저수 동굴은 물이 고이지 못하는 갈라진 저수 동굴입니다. 이집트의 물, 아시리아의 물은 복통과 질병을 일으키는 물입니다. 무릇 생수의 원천을 버리면 마실 물도 없거니와 이미 그 자체가 악이요 재앙입니다.

예레 2,13 정녕 내 백성이 두 가지 악행을 저질렀다. 그들은 생수의 원천인 나를 저버렸고 제 자신을 위해 저수 동굴을, 물이 고이지 못하는 갈라진 저수 동굴을 팠다.

예레 2,18-19 네가 나일 강 물을 마시러 이집트로 내려가다니 웬 말이냐? 유프라테스 강 물을 마시러 아시리아로 올라가다니 웬 말이냐? 네 악행이 너를 벌하고 네 배반이 너를 징계할 것이다. 주 너의 하느님을 저버린 것이 얼마나 나쁘고 쓰라린지 보고 깨달아라. 나에 대한 두려움이 너에게 없구나. 주 만군의 주님의 말씀이다.

사회사업도 마찬가지입니다. 당사자와 지역사회의 자연력으로써 아 니하고 복지기계에 의존함은 밑 빠진 독에 물 붓기입니다. 더 큰 고통을 낳는 일입니다.<sup>1)</sup>

---

1) 복지 자연력과 복지기계

사람에게는 복지 본성이 있습니다. 안으로는 자주하려는 마음, 책임 의식,

복지기제는 갈대 지팡이와 같아서 그것을 의지하면 어깨가 찢기고 허리가 휘청거립니다. 힘쓸수록 빠져드는 높이고 죄어드는 족쇄입니다. 물이 고이지 않는 웅덩이입니다. 더한 갈증을 일으키는 짠물입니다.

복지기제는 당사자의 삶 지역사회 사람살이에 복지병을 일으킵니다. 혼을 마비시키고 인간성을 고사시킬 수 있습니다. 당사자와 지역사회의 복지 바탕을 해치고 평지풍파 일으키기 쉽습니다.<sup>1)</sup>

---

자존심이 있습니다. 밖으로는 남을 도우려는 마음, 공동체 의식, 동정심이 있습니다. 사람에게에는 또한 복지 역량과 자원이 있습니다. 스스로 돕고 남을 도울 수 있는 재물 재능 경험 정보 지식 지혜 체력 시간 공간 인맥이 있습니다. 이런 복지 본성과 역량과 자원이 복지 자연력입니다.

당사자와 지역사회의 복지 자연력을 놓아두고 복지를 이루어 주는 수단이 복지기제입니다.

#### 1) 복지기제로써 해 주다 보면

당사자는 주체의식과 역량이 약해지고 자기 삶을 잃어 갑니다. 갈수록 구차해집니다. 사회성과 관계망이 줄어들고 지지체계가 허술해집니다. 갈수록 취약해집니다.

지역사회는 이웃 관계와 인정의 소통이 줄어들고 정겨운 사람살이를 잃어 갑니다. 갈수록 삭막해집니다.

사회사업가는 부담이 늘어나고 감동을 잃어 갑니다. 갈수록 힘들어집니다.

복지기제로써 주는 노릇 하다 보면 평지풍파 일어나기 쉽습니다.

안 받거나 못 받거나 덜 받는 사람은 배 아프고 아쉽고 섭섭하니 평지풍파이고, 받는 사람과 사이가 나빠지기도 하니 평지풍파입니다.

받는 사람 가운데 더러는 부끄럽게 여기니 평지풍파이고, 더러는 굶질거리거나 욕심부리거나 의존하려 드니 평지풍파입니다.

주는 사람은 남이 알아주기 바라는 마음 자랑하려는 마음이 은근히 일어나니 평지풍파이고, 다음에 또 주어야 하고 더 주어야 할 것 같은 부담이 생기니 평지풍파이고, 비교당하거나 시비에 휘말리니 평지풍파이고, 욕먹거나 위협을 받기도 하니 평지풍파입니다.

## 5. 사회사업 공부

잠언 19,2 지식이 없는 욕망은 좋지 않고 발걸음을 서두르는 자는 길을 그르친다.

로마 10,2-3 나는 그들에 관하여 증언할 수 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위한 열성을 지니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깨달음에 바탕을 두지 않은 열성입니다. 하나님에게서 오는 의로움을 알지 못한 채 자기의 의로움을 내세우려고 힘을 쓰면서, 하나님의 의로움에 복종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사회사업도 그렇습니다. 지식이 없는 열심, 깨달음에 바탕을 두지 않은 열성으로 하면 자기 의로움만 내세우는 일이 될 수 있습니다. 자신은 보람을 느끼고 사람들도 칭찬하는데 정작 받는 사람에게는 독이 될 수 있습니다. 더러는 자기 의로움을 세우느라 당사자의 삶을 해치고 복지사업 실적을 높이느라 지역사회 사람살이를 허물입니다.

이렇듯 잘 준비하지 않으면 사회사업가로서 합당치 않거니와 예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도 덕스럽지 못합니다.

몸은 한 지체가 아니라 많은 지체로 되어 있습니다. 머리로 발도 눈도 손도 모두 같은 몸에 속한 것입니다. 지체 간에 우열이 있을 수 없고 다만 각각 기능이 다를 뿐입니다. 1코린 12,1-30

사회사업도 하나님의 소명을 받아 행하는 성직입니다. 잘 준비하지 않으면 잘하기 어렵고 오히려 나쁜 결과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교회 일을 우선하느라 사회사업을 부업처럼 하면 어찌되겠습니까? 세상의 빛이고 세상의 소금이라 하셨는데, 교회 일로 바쁘면 어떻게 세상의 빛과 소금 구실을 할 수 있겠습니까? 빈축이나 사지 않으면 다행이겠습니다. 교회 활동은 열심히 하면서도 전공 활동은 소홀히 하는 학생, 민망합니다. 참조 : 복지야성 대학생 편 '실무 준비와 취업'

## 6. 인문학

인문학이 흔히 그러하듯 사회사업에서도 자주와 공생을 강조합니다. 다만 신자로서는 조심합니다.

1) 사회사업가로서는, 당사자가 자기 복지의 주체로 행하게 돕자, 복지를 이루되 당사자가 이루는 당사자의 삶이 되게 하자 합니다.

그러나 신자로서는, 하느님으로부터 독립하여 제 뜻대로 살기를 꺼립니다. 하느님께서 지도하시고 다스리시기를 원합니다. 제 삶 제 복지를 하느님께서 주관하시기를 원합니다.<sup>1)</sup>

2) 사회사업가로서는 당사자의 인간관계와 지역사회 이웃 관계를 살려 돕자 합니다. 그러나 신자로서는 하느님과 관계를 더욱 중시합니다. 하느님과 관계보다 사람과의 관계에 더 힘쓰고 바라고 의지하게 되지 않을까 오히려 경계합니다.

---

1) 로마 9,15-16 하느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내가 자비를 베푸려는 이에게 자비를 베풀고 동정을 베푸려는 이에게 동정을 베풀다.” 그러므로 그것은 사람의 의지나 노력이 아니라 하느님의 자비에 달려 있습니다.

그러므로 “주님께서 원하시면 우리가 살아서 이런저런 일을 할 것이다.”(야고 4,15) 합니다. “제가 원하는 대로 하지 마시고 아버지께서 원하시는 대로 하십시오.”(마태 26,39) 합니다.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사시는 것입니다.’(갈라 2,20) 합니다.

최선의 자유 의지, 그것은 바로 이끄시는 분은 주님이심을 인정하고(잠언 16,9) 주님의 뜻만 이루어지기를 바라고(잠언 19,21) 하느님께 의탁하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 1코린 3,9 우리는 하느님의 협력자고, 여러분은 하느님의 밭이며...

콜로 1,29 이를 위하여 나는 내 안에서 힘차게 작용하는 그리스도의 기운을 받아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 3) 인문 지성에 대한 경계

창세 3,6 여자가 쳐다보니 그 나무 열매는 먹음직하고 소담스러워 보였다. 그뿐만 아니라 그것은 슬기롭게 해 줄 것처럼 탐스러웠다.

시편 2,2-3 주님을 거슬러, 그분의 기름부음 받은 이를 거슬러 세상의 임금들이 들고 일어나며 군주들이 함께 음모를 꾸미는구나. “저들의 오락줄을 끊어 버리고 저들의 사슬을 벗어 던져 버리자.”<sup>1)</sup>

시편 14,1 어리석은 자 마음속으로 ‘하느님은 없다.’ 말하네.

1코린 1,18 멸망할 자들에게는 십자가에 관한 말씀이 어리석은 것이지만, 구원을 받을 우리에게는 하느님의 힘입니다.<sup>2)</sup>

콜로 2,8 아무도 사람을 속이는 헛된 철학으로 여러분을 사로잡지 못하게 조심하십시오. 그런 것은 사람들의 전통과 이 세상의 정령들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따르는 것이 아닙니다.<sup>3)</sup>

마태 6,13 저희를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저희를 악에서 구하소서.

---

1) 먹음직하고 소담스러워 보이고 슬기롭게 해 줄 것처럼 탐스러운 인문 지성은 우리가 오락줄과 사슬에 매였다고 그럴듯하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시편 2,4 하늘에 좌정하신 분께서 웃으신다. 주님께서 그들을 비웃으신다.

1코린 3,20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주님께서서는 지혜롭다는 자들의 생각을 아신다. 그것이 허황됨을 아신다.”

2) 1코린 1,23 그리스도는 유대인들에게는 걸림돌이고 다른 민족에게는 어리석음입니다.

### 3) 사회사업에서의 인문학 활동

어설픈 활동으로 인문학을 오도하게 될까 두렵습니다. 유행처럼 일어났으니 그렇게 꺼질 것 같아 지레 부끄럽습니다. 인문학 공부를 성공이나 행복을 위한 수단으로 여기게 될까 조심스럽습니다. 인문학 활동을 사업실적이나 명예나 이익의 재료로 치부하게 될까 조심스럽습니다. 인본주의에 빠져 하느님과 멀어질까 두렵습니다. 이래저래 신중해집니다.

## 7. 역설

코헬 1,17-18 나는 지혜와 지식, 우둔과 우매를 깨치려고 내 마음을 쏟았다. 그러나 이 또한 바람을 붙잡는 일임을 깨달았다. 지혜가 많으면 걱정도 많고 지식을 늘리면 근심도 늘기 때문이다.

코헬 7,15-18 내 허무한 생애 중에 나는 이 모든 것을 보았다. 의롭지만 죽어 가는 의인이 있고 사악하지만 오래 사는 악인이 있다. 너는 너무 의롭게 되지 말고 지나치게 지혜로이 행동하지 마라. 어찌하여 너는 너 자신을 파멸시키려 하느냐? 너는 너무 악하게 되지 말고 바보가 되지 마라. 어찌하여 네 시간이 되기 전에 죽으려 하느냐? 하나님을 붙잡고 있으면서 다른 하나에서도 네 손을 떼지 않는 것이 좋다. 정녕 하나님을 경외하는 이는 그 돌 다에서 성공을 거둔다.

코헬 12,12 내 아들이야, 이 밖에도 조심해야 할 바가 있다. 책을 많이 만들어 내는 일에는 끝이 없고 공부를 많이 하는 것은 몸을 고달프게 한다.

## 8. 안식일

창세 2,2-3 하느님께서서는 하시던 일을 이렛날에 다 이루셨다. 그분께서는 하시던 일을 모두 마치시고 이렛날에 쉬셨다. 하느님께서 이렛날에 복을 내리시고 그날을 거룩하게 하셨다. 하느님께서 창조하여 만드시던 일을 모두 마치시고 그날에 쉬셨기 때문이다.

레위 23,3 ‘너희는 옛새 동안 일을 할 수 있다. 그러나 이렛날은 안식일로서 거룩한 모임을 여는 안식의 날이니, 어떤 일도 해서는 안 된다. 이 날은 너희가 사는 곳 어디에서나 지켜야 하는 주님의 안식일이다.’

신명 5,12-14 주 너의 하느님이 너에게 명령한 대로 안식일을 지켜 거룩하게 하여라. 옛새 동안 일하면서 네 할 일을 다 하여라. 그러나 이렛날은 주 너의 하느님을 위한 안식일이다. 그날 너의 아들과 딸, 너의 남종과 여종, 너의 소와 나귀, 그리고 너의 모든 짐승과 네 동네에 사는 이방인은 어떤 일도 해서는 안 된다. 그렇게 하여 너의 남종과 여종도 너와 똑같이 쉬게 해야 한다.

이사 58,13-14 “네가 삼가 안식일을 짓밟지 않고 나의 거룩한 날에 네 일을 벌이지 않는다면 네가 안식일을 ‘기쁨’이라 부르고 주님의 거룩한 날을 ‘존귀한 날’이라 부른다면 네가 길을 떠나는 것과 네 일만 찾는 것을 삼가며 말하는 것을 삼가고 안식일을 존중한다면 너는 주님 안에서 기쁨을 얻고 나는 네가 세상 높은 곳 위를 달리게 하며 네 조상 야곱의 상속 재산으로 먹게 해 주리라.” 주님께서 친히 말씀하셨다.

1) 예수님께서서는 안식일에도 병자를 고치셨습니다.

루카 13,10-16 예수님께서서 안식일에 어떤 회당에서 가르치고 계셨다. 마침 그곳에 열여덟 해 동안이나 병마에 시달리는 여자가 있었다. 그는 허리가 굽어 몸을 조금도 펼 수가 없었다. 예수님께서서는 그 여자를 보시고 가까이 부르시어, “여인아, 너는 병에서 풀려났다.” 하시고, 그 여자에게 손을 얹으셨다. 그러자 그 여자가 즉시 똑바로 일어서서 하느님을 찬양하였다. 그런데 회당장은 예수님께서서 안식일에 병을 고쳐 주셨으므로 분개하여 군중에게 말하였다. “일하는 날이 옛새나 있습니다. 그러니 그 옛새 동안에 와서 치료를 받으십시오. 안식일에는 안 됩니다.” 그러자 주님께서서 그에게 이르셨다. “위선자들아, 너희는 저마다 안식일에도 자기 소나 나귀를 구유에서 풀어 물을 먹이러 끌고 가지 않느냐? 그렇다면 아브라함의 딸인 이 여자를 사탄이 무려 열여덟 해 동안이나 묶어 놓았는데, 안식일일지라도 그 속박에서 풀어 주어야 하지 않느냐?”

2) 겉모습을 보고 판단하지 말고 올바르게 판단하라.

요한 7,23-24 “모세의 율법을 어기지 않으려고 안식일에도 할례를 받는데, 어찌해서 내가 안식일에 한 사람의 온몸을 건강하게 만들어 준 것을 가지고 나에게 화를 내느냐? 겉모습을 보고 판단하지 말고 올바르게 판단하여라.”

3) ‘내가 바라는 것은 희생 제물이 아니라 자비다.’ 하신 뜻을 알라.

마태 12,1-8 그때에 예수님께서서 안식일에 밀밭 사이를 지나가시게 되었다. 그런데 그분의 제자들이 배가 고파서, 밀 이삭을 뜯어 먹기 시작하였다. 바리사이들이 그것을 보고 예수님께 말하였다. “보십시오, 선생님의 제자들이 안식일에 해서는 안 되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다윗과 그 일행이 배가 고팠을 때, 다윗이 어떻게 하였는지 너희는 읽어 본 적이 없느냐? 그가 하느님의 집에 들어가, 사제가 아니면 그도 그의 일행도 먹어서는 안 되는 제사 빵을 먹지 않았느냐? 또 안식일에 사제들이 성전에서 안식일을 어



겨도 죄가 되지 않는다는 것을 율법에서 읽어 본 적이 없느냐?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성전보다 더 큰 이가 여기에 있다. ‘내가 바라는 것은 희생 제물이 아니라 자비다.’ 하신 말씀이 무슨 뜻인지 너희가 알았더라면, 죄 없는 이들을 단죄하지는 않았을 것이다.”

#### 4) 안식일에 좋은 일은 해도 된다.

마태 12,10-12 사람들은 예수님을 고발하려고, “안식일에 병을 고쳐 주어도 됩니까?” 하고 물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 가운데 어떤 사람에게 양 한 마리가 있는데, 그 양이 안식일에 구덩이에 빠졌다고 하자. 그러면 그것을 잡아 끌어내지 않겠느냐? 사람이 양보다 얼마나 더 귀하냐? 그러니 안식일에 좋은 일은 해도 된다.”

마르 2,27 “안식일이 사람을 위하여 생긴 것이지, 사람이 안식일을 위하여 생긴 것은 아니다.”

#### 5) 사회사업가의 주일 근무

주일에 당면이 되었다면, 주일에 해야 하는 행사가 있다면, 어찌할까요? 주일이라는 길모습으로 판단하지 않고 올바르게 판단한다면, ‘내가 바라는 것은 희생 제물이 아니라 자비다.’ 하신 뜻을 생각한다면...

주일이라는 이유로 근무를 거부함으로 덕을 세우기는커녕 오히려 빈축을 살 수 있습니다. 만약 주일에 근무하는 일이 있어서 신앙생활에 지장이 있다면 한두 번 말씀드려 보고 뜻을 이룰 수 없으면 조용히 다른 직장을 찾아봅니다. 떠나더라도 원수 같이 생각하지 말고 친절 같이 여깁니다. 떠나서도 험담하지 말고, 좋았던 일 고마웠던 일을 이야기 하며 감사합니다. 잘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기도해 줍니다.<sup>1)</sup>

---

1) 티토 3,10 분파를 일으키는 사람에게는 한 번 또 두 번 경고한 다음에 관계를 끊으십시오.

2테살 3,14-15 우리가 이 편지에 적어 보내는 말에 누가 순종하지 않거든, 그를 주목하여 그와 상종하지 마십시오. 그렇게 하여 그가 부끄러운 일을 당하게 하십시오. 그러나 그를 원수처럼 여기지는 말고 형제처럼 타이르십시오.

## 9. 동역

코헬 4,9-12 혼자보다는 둘이 나으니 자신들의 노고에 대하여 좋은 보상을 받기 때문이다. 그들이 넘어지면 하나가 다른 하나를 일으켜 준다. 그러나 외톨이가 넘어지면 그에게는 불행! 그를 일으켜 줄 다른 사람이 없다. 또한 둘이 함께 누우면 따뜻해지지만 외톨이는 어떻게 따뜻해질 수 있으랴? 누가 하나를 공격하면 둘이서 그에게 맞설 수 있다. 세 겹으로 꼬인 줄은 쉽게 끊어지지 않는다.

마태 18,19-20 내가 또 진실로 너희에게 말한다. 너희 가운데 두 사람이 이 땅에서 마음을 모아 무엇이든 청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이루어 주실 것이다. 두 사람이나 세 사람이라도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함께 있기 때문이다.

### 1) 모세

탈출 18,25-26 모세는 온 이스라엘에서 유능한 사람들을 뽑아 백성의 우두머리, 곧 천인대장, 백인대장, 오십인대장, 십인대장으로 삼았다. 그리하여 이들이 늘 백성을 재판하였다. 그들은 어려운 일만 모세에게 가져오고, 작은 일들은 모두 그들이 맡아 재판하였다.

민수 11,14-17 14 (모세가 주님께) “저 혼자서는 이 온 백성을 안고 갈 수 없습니다. 저에게는 너무나 무겁습니다. 저에게 이렇게 하셔야 겠다면, 제발 저를 죽여 주십시오. 제가 당신의 눈에 든다면, 제가 이 불행을 보지 않게 해 주십시오.” 주님께서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네가 백성의 원로이며 관리라고 알고 있는 이스라엘의 원로들 가운데에서 나를 위해 일흔 명을 불러 모아라. 그들을 데리고 만남의 천막으로 와서 함께 서 있어라. 내가 내려가 그곳에서 너와 말하겠다. 그리고 너에게 있는 영을 조금 덜어 내어 그들에게 나누어 주겠다. 그러면 그들이 이 백성을 너와 함께 짊어져서, 네가 혼자 지지 않아도 될 것이다.”

## 2) 바오로

필리 4,11-12 내가 궁핍해서 이런 말을 하는 것은 아닙니다. 나는 어떠한 처지에서도 만족하는 법을 배웠습니다. 나는 비천하게 살 줄도 알고 풍족하게 살 줄도 압니다. 배부르거나 배고프거나 넉넉하거나 모자라거나 그 어떠한 경우에도 잘 지내는 비결을 알고 있습니다.

궁핍하지도 않고 어떤 처지에서나 만족할 줄 아는 바오로, 도움이 필요할까요? 필리피 교회가 쓸 것을 보내 주어 풍족하다 합니다.<sup>1)</sup>

필리 4,13-14 나에게 힘을 주시는 분 안에서 나는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겪는 환난에 여러분이 동참한 것은 잘한 일입니다.<sup>2)</sup>

‘나에게 힘을 주시는 분 안에서 나는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만 외우다가 어느 날 ‘그러나 내가 겪는 환난에 여러분이 동참한 것은 잘한 일입니다.’ 이 말씀이 들어왔습니다. 내가 다 할 수 있을지라도 ‘동역’이 귀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사람이 다 할 수 있을지라도 도울 여지가 있겠고 도와야겠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예수님도 열두 사도를 비롯하여 많은 사람과 동역하셨습니다.

---

1) 필리 4,18 나는 모든 것을 다 받아 넉넉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이 에파프 로디토스 편에 보낸 것을 받아 풍족합니다. 그것은 향기로운 예물이며 하느님 마음에 드는 훌륭한 제물입니다.

2) 필리피 교회는 바오로가 복음 선포를 시작할 무렵 마케도니아를 떠날 때 도와주었고 바오로가 테살로니카에 있을 때에도 두어 번 필요한 것을 보내 주었습니다.(필리 4,16-17)

### 3) 중재기도

① 하느님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려 할 때 아브라함은 “진정 의인을 죄인과 함께 쓸어버리시렵니까? 50, 45, 40, 30, 20, 10 혹시 그곳에서 열 명을 찾을 수 있다면 그래도 쓸어버리시렵니까?” 이렇게 여러 차례 감히 말을 바꿔 가며 간절히 중재했습니다. 창세기 제18~19장

② 이스라엘 백성이 금송아지를 만들어 숭배하는 죄를 범했을 때, 모세가 하느님께 애원했습니다. “주님, 어찌하여 당신께서는 큰 힘과 강한 손으로 이집트 땅에서 이끌어 내신 당신의 백성에게 진노를 터뜨리십니까? 어찌하여 이집트인들이, ‘그가 이스라엘 자손들을 해치려고 이끌어 내시는, 산에서 죽여 땅에 하나도 남지 않게 해 버렸구나.’ 하고 말하게 하시렵니까? 타오르는 진노를 푸시고 당신 백성에게 내리시려던 재앙을 거두어 주십시오.” 탈출기 제32장

바로로도 “동포들을 위해서라면, 나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 게서 떨어져 나가더라도 했으면 하는 심정”이라 했습니다. 로마 9,3

③ 예수님께서서는 제자들과 믿는 이들을 위해서 하느님 아버지께 중재기도를 올리셨습니다. 요한복음서 제17장

④ 베드로가 감옥에 갇혔을 때 교회는 그를 위하여 끊임없이 기도했습니다. 이에 주님께서 당신의 천사를 보내시어 베드로를 빼내어 주셨습니다. 사도 12,5-12

⑤ 성령께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중재기도를 하고 계십니다.

로마 8,26 이와 같이, 성령께서도 나약한 우리를 도와주십니다. 우리는 올바른 방식으로 기도할 줄 모르지만, 성령께서 몸소 말로 다 할 수 없이 탄식하시며 우리를 대신하여 간구해 주십니다.

로마 8,34 돌아가셨다가 참으로 되살아나신 분, 또 하느님의 오른쪽에 앉아 계신 분, 그리고 우리를 위하여 간구해 주시는 분이 바로 그리스도 예수님이십니다.

## ⑥ 바오로

바오로는 많은 사람을 위해 기도했을 뿐 아니라 많은 사람에게 자신을 위해 기도해 달라고 부탁했습니다.

2코린 1,11 여러분도 기도로 우리를 도와주십시오. 그리하면 많은 이들의 기도 덕분에 우리에게 내린 은사를 보고, 많은 사람이 우리 때문에 감사를 드리게 될 것입니다.

에페 6,19 내가 입을 열면 말씀이 주어져 복음의 신비를 담대히 알릴 수 있도록 나를 위해서도 간구해 주십시오.

콜로 4,3 말씀을 전할 수 있는 문을 하느님께서 열어 주시어 우리가 그리스도의 신비를 말할 수 있도록, 우리를 위해서도 기도해 주십시오.

1테살 5,25 형제 여러분, 우리를 위해서도 기도해 주십시오.

2테살 3,1-2 끝으로 형제 여러분, 우리를 위하여 기도해 주십시오. 주님의 말씀이 여러분에게서처럼 빠르게 퍼져 나가 찬양을 받고, 우리가 고약하고 악한 사람들에게서 구출되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 ⑦ 다니엘

바빌론 임금 네부카드네자르가 꿈을 꾸고 요술사 주술사 마술사 점성가들을 불러 꿈과 그 뜻을 밝히라고 다그쳤습니다. “꿈을 말씀해 주시면, 그 뜻을 밝혀 드리겠습니다.” 하니 임금은 격분하여 바빌론의 현인들을 모두 죽이라고 분부했습니다. 이 소식을 들은 다니엘은 친구들에게 중재기도를 요청했습니다.

다니 2,16-18 다니엘은 궁궐로 들어가서, 꿈의 뜻을 밝혀 줄 터이니 시간을 달라고 청하였다. 그런 다음에 다니엘은 집으로 가서, 자기의 동료 하난야와 미사엘과 아자르야에게 사정을 알렸다. 또 자기와 동료들이 바빌론의 나머지 현인들과 함께 죽지 않도록, 그 신비와 관련하여 하늘의 하느님께 자비를 청하자고 하였다.

하느님께서 꿈과 그 뜻을 다니엘에게 보여 주셨습니다. 다니엘은 하느님을 찬미하고 임금에게 가서 알려 드렸습니다. 임금은 다니엘에게 절하고 하느님을 칭송했습니다. 다니엘에게 선물을 많이 주고, 바빌론 전체를 다스리는 통치자이며 바빌론의 모든 현인을 거느리는 총감독관으로 삼았습니다. 다니엘은 임금에게 청하여 친구들이 바빌론 지방을 다스리게 했습니다.

#### ⑧ 여호사팻

모압 자손과 암몬 자손이 싸움을 걸어오자, 여호사팻은 온 유다에 단식을 선포하고 기도를 부탁했습니다.

2역대 20,1.3-6.12 그 뒤에 모압 자손들과 암몬 자손들이 므운 사람들과 함께 여호사팻에게 싸움을 걸어왔다. 여호사팻은 두려워서 주님께 문의하기로 작정한 다음, 온 유다에 단식을 선포하였다. 그러자 유다 백성이 주님께 도움을 구하려고 모여들었다. 유다의 모든 성읍에서 주님을 찾으려고 온 것이다. 여호사팻은 주님의 집 새 뜰 앞에 모인 유다와 예루살렘 회중 가운데에 서서, 이렇게 말하였다. “주 저희 조상들의 하느님, 당신은 하늘에 계신 하느님이 아니십니까? 또 당신은 민족들의 모든 나라를 다스리시는 분이 아니십니까? 당신의 손에 힘과 권능이 있기에 아무도 당신께 맞서지 못합니다. ~ 저희를 치러 온 저 큰 무리를 대적할 힘이 저희에게는 없습니다. 저희는 어찌할 바를 몰라 당신만 바라볼 뿐입니다.”

2역대 20,21-22 그리고 나서 여호사팻은 백성과 의논한 다음, 거룩한 예복을 입고 주님께 노래와 찬양을 드릴 이들을 내세웠다. 그리하여 이들이 군대 앞에 서서 나가며 노래하게 하였다. “주님을 찬송하여라. 주님의 자애는 영원하시다.” 그들이 이렇게 환호와 찬양의 노래를 시작하였을 때, 주님께서 유다를 치러 온 암몬 자손들과 모압과 세이르 산 주민들에게 복병을 보내시니, 그들이 패배하였다.

#### 4) 협력자를 모을 때

신명 20,2-8 싸울 때가 다가오면 사제가 앞에 나서서 백성에게 말해야 한다. 그는 백성에게 이렇게 말해야 한다. ‘이스라엘아, 들어라. 너희가 오늘 적과 싸울 때가 다가왔다. 너희 마음을 약하게 가지지 말고 두려워하지 마라. 당황하지도 말고 그들 앞에서 떨지도 마라. 주 너희 하느님은 너희를 위하여 적들과 싸우시려 너희와 함께 나아가셔서, 너희를 구원해 주시는 분이시다.’ 그다음에 군관들이 백성에게 이렇게 말해야 한다. ‘새 집을 짓고서 아직 봉헌하지 못한 사람이 있느냐? 그런 사람은 집으로 돌아가라. 그가 싸우다 죽어서, 다른 사람이 그 집을 봉헌하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 또 포도밭을 가꾸어 놓고서 아직 그 열매를 맛보지 못한 사람이 있느냐? 그런 사람은 집으로 돌아가라. 그가 싸우다 죽어서, 다른 사람이 그 열매를 맛보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 또 여자와 약혼하고서 아직 그 여자를 맞아들이지 못한 사람이 있느냐? 그런 사람은 집으로 돌아가라. 그가 싸우다 죽어서, 다른 사람이 그 여자를 맞아들이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 군관들은 백성에게 다시 이렇게 말해야 한다. ‘겉이 많고 마음이 약한 사람이 있느냐? 그런 사람은 집으로 돌아가라. 그런 자가 형제들의 마음을 제 마음처럼 녹아 내리게 하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

다른 일과 이 일 사이에서 마음이 확정되지 않은 사람, 이 일에 대한 의지 열정이 없는 사람, 이 일에 전념하기 어려운 사람, 두려워하는 사람, 준비하지 않은 사람, 이런 사람은 돌려보냄이 좋겠습니다.

사회사업 잘해 보려는 사람, 잘할 수 있는 사람, 이 일에 대한 의지와 열정이 있는 사람, 이 일에 전념할 수 있는 사람, 준비해 온 사람, 이런 사람과 함께함이 좋겠습니다.<sup>1)</sup>

---

#### 1) 조심 :

마태 13,29 가라지들을 거두어 내다가 밀까지 함께 뽑을지도 모른다.

요한 6,37 아버지께서 나에게 주시는 사람은 모두 나에게 올 것이고, 나에게 오는 사람을 나는 물리치지 않을 것이다.

## 10. 동료

어울리는 사람에 따라 복이 되기도 하고 화가 되기도 하니, 동료를 가려 사귀입니다. 단, 외모로 취하지는 않습니다.

1) 지혜와 지식, 지지와 격려, 인정과 비판, 자극과 도전으로써 사회사업 더 잘하게 만드는 사람을 가까이합니다.

잠언 13,20 지혜로운 이들과 어울리는 이는 지혜로워지고 우둔한 자들과 사귀는 자는 해를 입는다.

잠언 27,5-6 솔직한 훈계가 숨은 사랑보다 낫다. 사랑하는 이의 매는 신실하고 미워하는 자의 입맞춤은 해프다.

잠언 27,9 향유와 향이 마음을 기쁘게 하듯 친구의 다정함은 기운을 돋우어 준다.

잠언 27,17 쇠는 쇠로 다듬어지고 사람은 이웃의 얼굴로 다듬어진다.



2) 해가 될 사람을 멀리합니다.

잠언 18,24 서로 해나 끼치는 친구들이 있는가 하면 형제보다 더 가까운 벗이 있다.

잠언 29,24 도둑과 장물을 나누는 자는 제 목숨을 미워하는 자 그는 저주하는 소리를 듣고도 실토하지 않는다.

1코린 15,33 착각하지 마십시오.<sup>1)</sup> “나쁜 교제는 좋은 관습을 망칩니다.”

유다 임금 여호사팻은 우상 숭배자인 이스라엘 임금 아합과 혼인 관계를 맺고 전쟁에서 그를 도와 주님의 진노를 샅습니다.(역대기 하권 제18장)

2역대 19,2 예후 선견자가 나가 여호사팻 임금을 맞으며 말하였다. “임금님께서 그렇게 악한 자를 돕고 주님을 미워하는 자들을 사랑하셔야 합니까? 이 일 때문에 주님의 진노가 임금님께 내릴 것입니다.”

또한 악을 저지르는 자 이스라엘 임금 아하즈야와 동맹을 맺어 하느님께 징계를 받았습시다.

2역대 20,35-37 그 뒤에 유다 임금 여호사팻은 이스라엘 임금 아하즈야와 동맹을 맺었는데, 아하즈야는 악을 저지르는 자였다. 여호사팻은 타르시스로 가는 상선들을 만드는 일에 아하즈야와 동맹을 맺고, 에츠온 게베르에서 상선들을 만들었다. 그러자 마레사 사람 도다와후의 아들 엘리에제르가 여호사팻에게 이렇게 예언하였다. “임금님께서 아하즈야와 동맹을 맺으셨기 때문에, 임금님께서 만드신 것들을 주님께서 파괴하셨습니다.” 그 말대로 상선들이 부서져 타르시스로 갈 수 없게 되었다.

---

1) 시편 55,13-15 원수가 저를 모욕한 것이 아닙니다. 그랬다면 제가 참았을 것입니다. 저를 미워하는 자가 제 위에서 거드름을 피운 것이 아닙니다. 그랬다면 제가 그를 피해 숨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너, 내 동배 내 벗이며 내 동무인 너. 정답게 어울리던 우리 하느님의 집에서 떠들썩한 군중 속을 함께 거닐던 우리.

사회사업가로서 자주 불평하거나 험담하는 사람, 실력과 덕을 쌓는 데는 게으르면서 자기 몫 챙기는 데는 빠른 사람, 불의한 사람, 탐하는 사람, 이런 사람을 사귀지 않습니다.

잠언 22,24-25 화를 잘 내는 자와 사귀지 말고 성을 잘 내는 사람과 다니지 마라. 네가 그의 길에 익숙해져 너 스스로 올라미를 써서는 안 된다.

잠언 23,20-21 술을 폭음하는 자들과 고기를 폭식하는 자들과 어울리지 마라. 폭음가와 폭식가는 가난해지고 늘 술에 취하면 누더기를 걸치게 된다.

잠언 24,1 악한 사람들을 부러워하지 말고 그들과 어울리려 하지 마라.

잠언 28,7 폭식가들과 사귀는 자는 아버지를 욕되게 한다.

2코린 6,14-18 불신자들과는 상종하지 마십시오. 의로움과 불법이 어떻게 짝을 이룰 수 있겠습니까? 빛이 어떻게 어둠과 사귄 수 있겠습니까? ...

사회사업가라 하는 사람이 이런 사람이면 사귀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1코린 5,9-12 나는 전에 써 보낸 편지에서 불륜을 저지르는 자들과 상종하지 말라고 하였습니다. 물론 불륜을 저지르는 이 세상 사람들이나 탐욕을 부리는 자들, 그리고 강도들이나 우상 숭배자들과 전혀 상종하지 말라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이 아예 이 세상 밖으로 나가야 할 것입니다. 내가 그렇게 쓴 뜻은, 교우라고 하는 사람이 불륜을 저지르는 자거나 탐욕을 부리는 자거나 우상 숭배자거나 중상꾼이거나 부정꾼이거나 강도면 상종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런 자와는 식사도 함께 하지 마십시오. 바깥 사람들을 심판하는 것은 내 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특히 먹고 마시는 자리를 잘 가립니다. 지위가 높거나 부유한 사람이 내게 음식을 베풀 때는 더욱 조심합니다.

잠언 23,1-3 군주와 식사하는 자리에 앉게 되면 네 앞에 무엇이 있는지 잘 살피라. 배가 몹시 고프면 네 목구멍에 칼을 세워 두어라. 그의 진수성찬을 탐내지 마라. 그것은 사람을 속이는 음식이다.

잠언 23,6-8 눈길 사나운 자의 빵을 먹지 말고 그의 진수성찬을 탐내지 마라. 그는 속으로 계산하는 그런 자이니 말로는 “먹고 마시게!” 하면서도 마음은 너와 함께 있지 않다. 너는 먹은 것을 토해 내야 하고 네가 한 찬사도 소용이 없어진다.<sup>1)</sup>

---

1) 집회 31,12-20 네가 큰상을 받고 앉았느냐? 그렇다면 그 앞에서 목구멍을 벌리지 말고 “진수성찬이로군!” 하고 말하지 마라. 탐욕스러운 눈은 좋지 않다는 사실을 기억하여라. 눈보다 더 탐욕스럽게 창조된 것이 무엇이겠느냐? 그래서 눈은 자칫하면 눈물을 흘리게 된다. 남이 눈독을 들인 음식에 손을 내밀지 말고 같은 그릇에 손을 대다 그와 부딪치지 않도록 조심하여라. 네가 좋아하는 것을 남도 좋아하리라고 여기며 모든 일에 신중하여라. 네 앞에 놓인 것을 사람답게 먹고 게걸스럽게 먹어 미움을 사지 않도록 하여라. 예의 바르게 식사를 먼저 끝내고 탐식하여 실례를 범하지 마라. 여러 사람과 함께 먹을 때는 그들보다 먼저 손을 뺐지 마라. 교양 있는 사람은 적은 양으로도 충분하지 않느냐? 그는 잠자리에서 숨을 가쁘게 쉬지 않는다. 음식을 절제하면 건강한 잠을 이루고 일찍 일어나 기분이 상쾌하다. 잠을 설치고 메스껍고 속이 뒤틀리는 고통은 음식을 너무 많이 먹은 사람이 겪게 된다.

집회 37,29-30 온갖 사치를 누리려 하지 말고 과도하게 음식을 탐하지 마라. 사실 병은 음식을 지나치게 먹는 데서 오고 탐식은 구토로 이어진다.

잠언 25,16 꿀을 발견하더라도 적당히 먹어라. 질러서 뱉어 버리게 된다.

## 11. 어른을 책망할 때

탈출 22,27 너희는 하느님을 욕하거나 너희 백성의 수장을 저주해서 는 안 된다.

레위 19,32 너희는 백발이 성성한 어른 앞에서 일어서고, 노인을 존경 해야 한다. 너희는 하느님을 경외해야 한다. 나는 주님이다.

민수 12,1-10 모세가 에티오피아 여자를 아내로 맞아들였는데, 미르 얄과 아론은 모세가 아내로 맞아들인 그 에티오피아 여자 때문에 모세 를 비방하였다. 그들은 이렇게 말하였다. “주님께서 모세를 통해서만 말씀하셨느냐? 우리를 통해서도 말씀하시지 않았느냐?” 주님께서 이 말을 들으셨다. 그런데 모세라는 사람은 매우 겸손하였다. 땅 위에 사 는 어떤 사람보다도 겸손하였다. 주님께서 갑자기 모세와 아론과 미르 얄에게 말씀하셨다. “너희 셋은 만남의 천막으로 나오너라.” 그들 셋 이 나오자, 주님께서 구름 기둥 속에 내려오시어 천막 어귀에 서시고, 아론과 미르얄을 부르셨다. 그들이 나와 서자 말씀하셨다. “너희는 내 말을 들어라. 너희 가운데에 예언자가 있으면 나 주님이 환시 속에서 나 자신을 그에게 알리고 꿈속에서 그에게 말할 것이다. 나의 종 모세 는 다르다. 그는 나의 온 집안을 충실히 맡고 있는 사람이다. 나는 입과 입을 마주하여 그와 말하고 환시나 수수께끼로 말하지 않는다. 그는 주 님의 모습까지 볼 수 있다. 그런데 너희는 어찌하여 두려움도 없이 나 의 종 모세를 비방하느냐?” 주님께서는 그들에게 진노하시며 떠나가 셴다. 구름이 천막 위에서 물러가자, 미르얄이 악성 피부병에 걸려 눈 처럼 하얗게 되어 있는 것이 아닌가? 아론이 몸을 돌려 미르얄을 보자, 과연 그 여자는 악성 피부병에 걸려 있었다.

1사무 26,9 누가 감히 주님의 기름부음 받은 이에게 손을 대고도 벌 받 지 않을 수 있겠느냐? 배경 참조 : ?쪽 이야기

코헬 10,4 군주가 네게 화를 내어도 자리를 뜨지 마라. 침착함은 큰 잘 못도 막을 수 있다.

사도 23,1-5 바오로가 최고 의회 의원들을 유심히 바라보고 나서 말하였다. “형제 여러분, 나는 이날까지 하느님 앞에서 온전히 바른 양심으로 살아왔습니다.” 그러자 하나니아스 대사제가 그 곁에서 있는 자들에게 바오로의 입을 치라고 명령하였다. 그때에 바오로가 그에게 말하였다. “회칠한 벽 같은 자, 하느님께서 당신을 치실 것이오! 율법에 따라 나를 심판하려고 앉아 있으면서, 도리어 율법을 거슬러 나를 치라고 명령한단 말이오?” 그 곁에서 있던 자들이 “하느님의 대사제를 욕하는 것이오?” 하자, 바오로가 말하였다. “형제 여러분, 저분이 대사제인 줄은 몰랐습니다. 사실 성경에도 ‘네 백성의 수장을 저주해서는 안 된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로마 9,10-20 그뿐만 아니라, 레베카가 한 남자 곧 우리 조상 이사악에게서 잉태하였을 때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두 아들이 태어나기도 전에, 그들이 선이나 악을 행하기도 전에, 하느님께서서는 당신 선택의 뜻을 지속시키시려고, 또 그것이 사람의 행위가 아니라 부르시는 당신께 달려 있음을 드러내시려고, “형이 동생을 섬기리라.” 하고 레베카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이는 성경에 기록된 그대로입니다. “나는 야곱을 사랑하고 에사우를 미워하였다.” 그렇다면 우리가 무엇이라고 말해야 합니까? 하느님 쪽이 불의하시다는 것입니까?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하느님께서서는 모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내가 자비를 베푸려는 이에게 자비를 베풀고 동정을 베푸려는 이에게 동정을 베풀다.” 그러므로 그것은 사람의 의지나 노력이 아니라 하느님의 자비에 달려 있습니다. 사실 성경도 파라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바로 이렇게 하려고 내가 너를 일으켜 세웠다. 곧 너에게서 내 힘을 보이고, 온 세상에 내 이름을 떨치게 하려는 것이다.” 이렇게 하느님께서서는 당신이 원하시는 대로 어떤 사람에게는 자비를 베풀시고, 당신이 원하시는 대로 어떤 사람은 완고하게 만드십니다. 이제 그대는, “그렇다면 하느님께서서는 왜 사람을 여전히 책망하십니까? 사실 누가 그분의 뜻을 거역할 수 있겠습니까?” 하고 물을 것입니다. 아, 인간이여! 하느님께 말대답을 하는 그대는 정녕 누구인가? 작품이 제작자에게 “나를 왜 이렇게 만들었소?” 하고 말할 수 있습니까?

로마 13,1-7 사람은 누구나 위에서 다스리는 권위에 복종해야 합니다. 하나님에게서 나오지 않는 권위란 있을 수 없고, 현재의 권위들도 하나님께서 세우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권위에 맞서는 자는 하나님의 질서를 거스르는 것이고, 그렇게 거스르는 자들은 스스로 심판을 불려오게 됩니다. 사실 지배자들이란 악행을 할 때에나 두렵지 선행을 할 때에는 두렵지 않습니다. 그대는 권위를 두려워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선을 행하십시오. 그러면 권위로부터 인정을 받을 것입니다. 지배자는 그대의 이익을 위하여 일하는 하나님의 일꾼입니다. 그러나 그대가 악을 행할 경우에는 두려워하십시오. 그들은 공연히 칼을 차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들은 악을 저지르는 자에게 하나님의 진노를 집행하는 그분의 일꾼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진노 때문만이 아니라 양심 때문에도 복종해야 합니다. 여러분이 자세를 바치는 것도 이 때문입니다. 그들은 바로 이러한 일에 정성을 다하는 하나님의 심부름꾼입니다. 여러분은 모든 이에게 자기가 해야 할 의무를 다하십시오. 자세를 내야 할 사람에게는 자세를 내고 관세를 내야 할 사람에게는 관세를 내며, 두려워해야 할 사람은 두려워하고 존경해야 할 사람은 존경하십시오.

에페 6,5 종 여러분, 그리스도께 순종하듯이, 두려워하고 떨면서 순수한 마음으로 현세의 주인에게 순종하십시오.

골로 3,22 종 여러분, 무슨 일에서나 현세의 주인에게 순종하십시오. 사람들의 비위를 맞추기 좋아하는 자들처럼 눈가림으로 하지 말고, 주님을 경외하면서 순수한 마음으로 순종하십시오.

1티모 2,2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해서도 기도하여, 우리가 아주 신심 깊고 품위 있게, 평온하고 조용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하십시오.

1티모 6,1-2 종살이의 멍에를 메고 있는 이들은 누구나 자기 주인을 크게 존경해야 할 사람으로 여겨야 합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이름과 우리의 가르침이 모욕을 당하지 않을 것입니다. 신자를 주인으로 둔 종들은 그 주인이 형제라고 해서 소홀히 대해서는 안 됩니다. 오히려 주인을 더욱 잘 섬겨야 합니다. 자기들의 선행으로 덕을 보는 사람들이 사

량받는 신자들이기 때문입니다.

1베드 2,13-14 주님을 생각하여, 모든 인간 제도에 복종하십시오. 임금에게는 주권자이므로 복종하고, 총독들에게는, 악을 저지르는 자들에게 벌을 주고 선을 행하는 이들에게 상을 주도록 임금이 파견한 사람이므로 복종하십시오.

지도자나 윗사람이나 어른이라도 비판하는 일이 없을 수는 없으나 조심스럽습니다. 내게 그럴 만한 자격이 있는지, 감당할 수 있을지, 결국 이 어떠할지, 헤아려 봐야 할 것 같습니다.<sup>1)</sup>

그래도 지도자나 윗사람이나 어른의 잘못을 바로잡아야 한다면 태도와 말투가 아주 중요합니다. 자칫 문제의 본질은 묻혀 버리고 그 태도나 말투가 시뻘거리가 될 수 있습니다.

1티모 5,1-2 나이 많은 남자에게는 나무라지 말고 아버지를 대하듯이 권고하십시오. 젊은 남자는 형제처럼, 나이 많은 여자는 어머니처럼, 젊은 여자는 누이처럼, 오로지 순결한 마음으로 대하십시오.

## 12. 아이를 책망할 때

잠언 19,18 아직 희망이 있을 때 자식을 벌하여라. 그러나 죽일 생각까지는 품지 마라.

에페 6,4 그리고 아버지 여러분, 자녀들을 성나게 하지 말고 주님의 훈련과 훈계로 기르십시오.

골로 3,21 아버지 여러분, 자녀들을 들볶지 마십시오. 그러다가 그들의 기를 꺾고 맙니다.

---

1) 마태 18,7 불행하여라, 남을 죄짓게 하는 일이 많은 이 세상! 사실 남을 죄짓게 하는 일은 일어나기 마련이다. 그러나 불행하여라, 남을 죄짓게 하는 일을 하는 사람!

### 13. 남이 욕할 때

#### 1) 저주도 하느님께서 허락하셔야

잠언 26,2 참새가 떠돌듯, 제비가 날아다니듯 까닭 없는 저주는 들어맞지 않는다.

애가 3,37-38 주님께서 명령하지 않으셨으면 누가 명령하여 이런 일이 일어났겠는가? 나쁜 것도 좋은 것도 지극히 높으신 분의 명령에 따라 일어나지 않는가?

욥 1,6-12 하루는 하느님의 아들이 모여 와 주님 앞에 섰다. 사탄도 그들과 함께 왔다. 주님께서 사탄에게 물으셨다. “너는 어디에서 오는 길이나?” 사탄이 주님께 “땅을 여기저기 두루 돌아다니다가 왔습니다.” 하고 대답하자, 주님께서 사탄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나의 종 욥을 눈여겨보았느냐? 그와 같이 흠 없고 올곧으며 하느님을 경외하고 악을 멀리하는 사람은 땅 위에 다시 없다.” 이에 사탄이 주님께 대답하였다. “욥이 까닭 없이 하느님을 경외하겠습니까? 당신께서 몸소 그와 그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를 사방으로 울타리 쳐 주지 않으셨습니까? 그의 손이 하는 일에 복을 내리셔서, 그의 재산이 땅 위에 넘쳐 나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당신께서 손을 펴시어 그의 모든 소유를 쳐 보십시오. 그는 틀림없이 당신을 눈앞에서 저주할 것입니다.” 그러자 주님께서 사탄에게 이르셨다. “좋다, 그의 모든 소유를 네 손에 넘긴다. 다만 그에게는 손을 대지 마라.” 이에 사탄은 주님 앞에서 물러갔다.<sup>1)</sup>

---

1) 1열왕 22,19-23 (미카야가 아합의 패전을 예언하다) 미카야가 말하였다. “그러므로 주님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내가 보니, 주님께서 어좌에 앉으시고 하늘의 온 군대가 그분 오른쪽과 왼쪽에서 있었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누가 아합을 끌어내어, 그를 라못 길앗으로 올라가 쓰러지게 하겠느냐?’ 하고 물으셨습니다. 그러자 저마다 이런저런 의견을 내놓는데, 어떤 영이 주님 앞에 나서서 ‘제가 아합을 끌어내겠습니다.’ 하고 말하였습니다. 주님께



## 2) 저주를 변하여 복이 되게 하시는 하느님

신명 23,6 오히려 주 너희 하느님께서는 너희를 위하여 저주를 복으로 바꾸어 주셨다.

이집트에서 나온 이스라엘 백성이 하느님의 도우심으로 승승장구하며 모압 별판에 이르렀습니다. 모압 사람이 몹시 무서워했습니다. 이에 모압 임금 발락이 발라암에게 사람을 보내어 ‘오셔서 나를 위하여 그(이스라엘) 백성을 저주해 주십시오.’ 했습니다. ‘극진히 대우해 드릴 뿐만 아니라, 무엇이든지 요구하는 대로 해 드리겠습니다. 그러나 부디 오셔서 나를 위하여 저 백성을 저주해 주십시오.’ 하며 집요하게 회유했습니다. 발라암이 마침내 발락에게 갔습니다.(민수기 제22장)

발락이 발라암에게 이스라엘 백성을 저주하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발람의 입에서 나온 말은 저주가 아니라 축복이었습니다. 세 번씩이나 그랬습니다. 발라암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민수 23,8.20 “하느님께서 저주하시지 않은 이를 내가 어찌 저주하랴? 주님께서 악담하시지 않은 이에게 내가 어찌 악담하랴?” “보라, 나는 축복하라는 지시를 받았으니 그분께서 강복하신 것을 내가 되돌릴 수 없다.”

민수 24,13 “발락이 비록 그의 집에 가득 찰 만한 은과 금을 준다 하여도, 나는 주님의 분부를 어기고서는, 좋은 일이든 나쁜 일이든 내 마음대로 할 수가 없습니다. 나는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만 말해야 합니다.”

---

서 그 영에게 ‘어떻게 그를 피어내겠느냐?’ 하고 물으시자, 그는 ‘제가 나가 아함의 모든 예언자의 입에서 거짓말하는 영이 되겠습니다.’ 하고 대답하였습니다. 주님께서 ‘네가 그를 피어내어라. 성공할 것이다. 가서 그렇게 하여라.’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이제 보십시오, 주님께서서는 임금님의 이 모든 예언자 입에 거짓말하는 영을 넣으셨습니다. 주님께서 임금님께 재앙을 선언하신 것입니다.”

3) 저주하게 내버려 둡니다.

하느님께서 저주를 허락하셨고, 저주까지도 적당한 때에 적당하게 쓰심으로 선을 이루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잠언 16,4 주님께서서는 모든 것을 제 목적대로 만드셨으니 악인까지도 재앙의 날을 위하여 만드셨다.

코헬 3,11 그분께서는 모든 것을 제때에 아름답도록 만드셨다.

로마 8,28 하느님을 사랑하는 이들, 그분의 계획에 따라 부르심을 받은 이들에게는 모든 것이 함께 작용하여 선을 이룬다는 것을 우리는 압니다.

2사무 16,5-12 (압살롬의 반란을 피하여 달아나는 중) 다윗 임금의 바후림에 이르렀을 때였다. 사울 집안의 친척 가운데 한 사람이 그곳에서 나왔는데, 그의 이름은 게라의 아들 시므이었다. 그는 나오면서 저주를 퍼부었다. 온 백성과 모든 용사가 임금 좌우에 있는데도, 그는 다윗과 다윗 임금의 모든 신하에게 돌을 던졌다. 시므이는 이렇게 말하며 저주하였다. “꺼져라, 꺼져! 이 살인자야, 이 무뢰한아! 사울의 왕위를 차지한 너에게 주님께서 그 집안의 모든 피에 대한 책임을 돌리시고, 그 왕위를 네 아들 압살롬의 손에 넘겨주셨다. 너는 살인자다. 이제 재앙이 너에게 닥쳤구나.” 그때 츠루야의 아들 아비사이가 임금에게 말하였다. “이 죽은 개가 어찌 감히 저의 주군이신 임금님을 저주합니까? 가서 그의 머리를 베어 버리게 해 주십시오.” 그러나 임금은 “츠루야의 아들들이여, 그대들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소? 주님께서 다윗을 저주하라고 하시어 저자가 저주하는 것이라면, 어느 누가 ‘어찌하여 네가 그런 짓을 하느냐?’ 하고 말할 수 있겠소?” 그러면서 다윗이 아비사이와 모든 신하에게 일렀다. “내 배 속에서 나온 자식도 내 목숨을 노리는데, 하물며 이 벤야민 사람이야 오죽하겠소? 주님께서 그에게 명령하신 것이니 저주하게 내버려 두시오. 행여 주님께서 나의 불행을 보시고, 오늘 내리시는 저주를 선으로 갚아 주실지 누가 알겠소?”

소원

언제든지 툭툭 털고 일어나 미련 없이 떠날 수 있는  
욕심도 없고 얽매임도 없는 나그네이고 싶습니다.

천진난만한 동심과 해맑은 웃음으로  
때 묻고 코 묻어도 마냥 좋은 털털이이고 싶습니다.

땀 흘려 일하고 달게 잠으로 행복해하며  
먹을 것 입을 것 있음으로 족한 줄 아는 빈자이고 싶습니다.

떼어 주고 뽑아 주고 흠으로 돌아갈 때까지  
섬기기만 하다가 이름 없이 사라지는 머슴이고 싶습니다.

유언

장기와 시신은 약속한 곳에 기증하고 1588-1589  
유품은 필요한 곳에 주거나 없애 주십시오.  
부고하지 말고 무덤을 만들지 마십시오.

자녀들아,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으면 족한 줄 알자.  
사는 동안 나그네와 같이 지내며 선한 일에 힘쓰자.

모든 일에 감사하자.

하느님께 가까이 있음이 가장 좋은 복이니,  
무엇보다 이 복을 누리며 살자.